

우리문학의 깊고 거대한 뿌리 찾기

고희기념논총 「한국의 漢文學」 펴낸 이병주박사



이 책은 우리고전에 양각된 선인들의 그림자를 밟아온 원로학자의 기나긴 노정 끝에 이뤄진 작업이라는 점에서, 더욱이 현대 한문학연구를 집대성 일반인에게 그 폭과 깊이를 드러내보임과 동시에 현재의 연구 수준을 가늠토록 했다는 점에서 기념비적 '한국한문학 통사'로 평가,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병주박사.

우리문학에 있어 '뿌리찾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문자 없던 시대에 표기도구의 구실을 하면서 2천년 이상 우리문화를 글로써 일궈온 한문학은, 켜켜이 쌓인 역사의 흙더미 위에서 있는 우리문학의 탄탄한 그릇터기임에 틀림없다. 한문학을 한글문학의 대칭이 아닌 우리문학의 뿌리로서 이해하고자 함은 거기에 담겼을 선인들의 삶의 숨결을 느껴보고자 함이다.

그러기에 이병주(71, 동악한문학회장)교수가 엮은 「한국의 漢文學」(민음사, 전4권)은 우리고전에 양각된 선인들의 그림자를 밟아온 원로학자의 기나긴 노정 끝에 이뤄진 작업이라는 점에서 우리문학의 뿌리를 찾기 위한 뚜렷한 출발선으로 다가선다. 더욱이 이 책은 현대 한문학연구를 집대성함으로써 일반인에게 그 폭과 깊이를 드러내보임과 동시에 해당 분야의 대표적 논문으로 현재의 연구수준을 가늠토록 했다는 점에서 '한국한문학 통사'로 평가되고 있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각 시대 분야별 대표논문 꼼꼼히 모아

“사실 한문학은 국문학의 영역 바깥으로 밀려난 소외된 학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엔 비로소 젊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지요. 이제까지 한문학 저서나 연구논문이 책으로 출판된 예도 드물어 전

문서적 심여종이 있을 뿐입니다. 일반인이 쉽게 한문학에 접근하기 위해서라도 대표적인 논문을 한자리에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각 시대와 분야 장르별로 권위 있는 전문연구자 78명이 쓴 80편의 논문, 총 2천여페이지를 4권에 나눠 묶은 이 방대한 책은 원래 이교수의 동국대학교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논문집으로 기획했다가 작년에 고희기념논총으로 마련된 것. 이번에 다시 단행본으로 엮은 이 4권의 책에는 李家源의 「한국한문학의 변천과 전망」, 徐首生의 「영남지역의 한문학」 그리고 吳義男의 「우암 송시열의 시문학」 등 세편을 추가, “나름대로의 독단”으로 한문학계를 대표한 논문을 모아 선보이게 됐다. 내용 또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총론에선 시대사를, 각론에선 문학과 작품을 각각 다루고 있다.

제1권인 총론에는 이가원교수(단국대)의 「한국한문학의 변천과 전망」을 비롯해서 삼국시대부터 백제와 발해를 거쳐 고려,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별로 빛이 난 한문학의 역사적 전개를 추적하고 있다. 특히 문인집단과 기행시·서사시·小樂府 등 문학종류에 대한 사적 흐름을 읽을 수 있어 시대별로 나타난 독특한 한문학 양식을 엿볼 수 있다.

‘문학론’을 모은 제2권은 고려 전기 귀족문화를 대표하는 「김부식의 문학사상」(조동일

과 「李奎報의 詩論」(金鎮英)으로부터 한국의 두보로 비견되는 「李齊賢 詩의 특색과 영향」(柳豐淵), 허균과 김만중, 박지원 등에 이르는 문학이론 19편의 논문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 실은 논문들은 주로 대표적인 문학가의 문학사상을 분석했는데, 한문학의 배경인 유학정신이 생활 깊숙이 배어 있음을 구체적인 작품 속에서 예증하여 흥미롭다.

한문학이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작가와 작품 발굴에 주력한 결과 수없이 많은 시와 소설을 남긴 유학자들이 유학자라는 명성으로 가려진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밝혀나간 것도 한문학 연구의 새 지평을 연 셈이었다. 그런 점에서 제3, 4권의 작품론에 언급된 43명의 문인들은 기왕에 대표성을 지닌 최치원·이규보·김시습 등 외에도 草衣禪師나 朴漢永 등 새로운 한문학 문인의 면모를 풍부히 다룬 점이 특징적이다.

이렇게 꼼꼼히 망라된 논문모음에도 불구하고 이병주교수는 2천년의 유구한 문학을 탐구함에 있어 대표격을 추리자니 자연 애로가 많아 놓친 부분도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낸다.

“학파의 실상이나 이념상의 실재를 천착한 논문이 부실하게 다뤄진 감이 있습니다. 또 儒家나 禪家의 작품도 심층분석이 덜해 아쉽고요. 한문학을 중국문학과 관계 속에서 비교검찰한 논문도 빠졌는데, 그것은 ‘한문학’만 다루자는 애초의 기획의도에 충실하자는 뜻에서였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대부 독점문학이었던 한문학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병주교수 자신이 한시를 전공하다보니 자연히 시문학의 비중이 커진 것인데, 그것은 한문학 전체에서 차지하는 한시의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한문학에서 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조선 때의 ‘과거제’에 의한 폐단일 수도 있습니다. 벼슬아치가 되기 위한 ‘과거제’가 시문학을 중시했고, 자연히 자기주장을 펼 수 있는 사상적 학문을 익히기보다는 단지 시적인 재주만 연마하는 풍토가 팽대했던 거죠. 그렇다고 당시의 한시들이 중국의 시문학을 능가하는 수준도 아니고.”

여기서 당시 한문학이 민중을 소외시킨 양반 사대부들의 독점문학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책에도 사대부문학의 대적점으로서 조



선후기의 「閭巷문학과 서민문학」(林榮澤)을 논하는데, 대개 17세기 중엽부터 싹튼 실학과 문학의 분위기와 아울러 中人·胥吏 중심의 중간층 ‘여향문학’과 사회의 기층 ‘서민문학’을 새로운 문학담당자로서 살펴보고 있다.

“병자호란 이후 실학사상이 들어오던 어귀에 중언문학이 발달하기 시작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언이라면 예컨대 통역관 같은 말단의 행정실무를 맡고 있어 사대부에는 못미치지만 어느 정도의 학문을 지니고 있었죠. 당시 상공업이 활기를 띠면서 중언들의 상업진출이 경제적 여유를 가져다주었고 그들은 서서히 ‘인간발전’의 의식을 깨치게 됩니다. 조선후기로 올수록 사대부들은 한자문학에 집착하여 고수한 반면, 중언계층은 일찌감치 국한문을 혼용해서 신문학 이후 헤게모니를 쥐기 시작했다고보는 거죠.”

결국 한문학을 언급할 때 문제삼는 한글문학과의 크나큰 간극은 이러한 중언문학 혹은 ‘여향·서민문학’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한글문학에서 끊어진 단절상을 매울 수 있다는 의미다. 한글문학과의 깊은 골을 뛰어넘기 위한 또다른 과제 가운데 이교수는 현대문으로의 번역문제를 으뜸으로 꼽는다.

한문학의 매력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선 “시는 시답게 文은 文답게”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특히 이백의 시는 함축이 절묘해서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 예이지만 좋은 번역을 위해 우선 우리말 어휘력이 풍부해야 하고, 우

일러스트레이션의 즐거움



1987년부터 다섯해 동안 책 만드는 일에 몰두해온
우리 바른글방 식구들 스물 일곱 명은 이제서야 비로소
출판전문집단으로의 본격적인 자리매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의 길이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일러스트를 하는 일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저마다 강한 개성과 독특한 감각으로 일류라고 자랑하는 가운데
바른글방 식구들은 아직 이류라고 자처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것은 아직 성장하고 나아갈 곳이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필요한 자기확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책을 사랑하는 기쁨과 책을 만드는 즐거움이 함께 있는 집단
바른글방에는 이류임을 부끄럽게 여기지만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일러스트레이션을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출·판·전·문·집·단

바른글방

편집기획부 전산사식부
종로3가 낙원상기역 신한빌딩 4층 종로3가 파카다리 극장 옆 초동빌딩 2층
전화 766-6426(대), 766-6427 전화 764-4241(대), 764-4240
766-1947 팩시 744-9209

출판전문집단 바른글방 사람들은 책에 관한 모든 일들을
거뜰히, 믿음직스럽게 해낼 수 있습니다.
본문의 편집 및 교정은 물론, 책의 기획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표지·본문·출판광고 디자인과 전산·수동 입·출력, 그리고 제작전반에
이르기까지 숙련된 전문가의 솜씨로 대항해 드립니다.

바른글방에서는 이를 위해, 미려한 서체의 최신기종인
전산사식 편집·입력기 15대와 레이저 교정지
출력기·인화지 및 필름 출력기를 자체보유하고 있으며, 일반 퍼스컴이나
워드프로세서로 입력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를 위한 수동사식기와 중국어 간체자 자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말의 조사를 잘 활용해야 그 맛을 살릴 수
있으며, 5언은 3·4·5조의 노래가락조로 7언
은 4·4조의 가사체로 풀이하는 것이 이왕이
면 운율을 살릴 수 있다고.

무엇보다 한문학에서의 번역은 “주어진 글
자를 단순히 풀이하기보다 글자 바깥에 있는
의미를 추출”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는 설명
이다. 이를테면 ‘月春山’이라는 시구는 ‘八字
春山’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으면 ‘초생달 같은
눈썹’으로 옮겨 해석할 수 있겠지만 흔히 ‘봄
동산에 달이 떠오른다’로 무심코 풀이하기 십
상이라는 지적이다. 두시언해 활자본처럼 40여
년 걸려 번역을 완성한 후 한번도 고치지 않을
만큼 명역이 돼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 책에
실린 번역의 대부분은 원용하기보단 참고하기
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음율, 문체 등 해석은쟁이 과제

해석에 관한 논쟁부분도 이교수가 지적하는
한문학이 안고 있는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즉
음율, 聲律의 문체와 문체문제로 집약될 수 있
는데, 이 책 ‘문학론’ 편에 실린 논문들 가운데
서도 문체의 특징에 주안점을 둔 글들이 드러
나 있다.

작자의 경험과 사실에 바탕하여 실상의 기
술에 중점을 둔 연암 박지원을 비롯한 북학파
의 신채문, ‘시의에 적합’하고 ‘평이하며’ ‘文
과 道가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함을 주장한 택당
「李植의 고문론」(朴永浩) 등이 문체에 관해
다루고 있다. 또한 조선후기 「古文의 원류와
성격」(金都鍊)을 통해 연암의 신채문이 실은
창의성을 본질로 하는 古文이었음을 밝히는가
하면, 음조에 대한 고려와 서술대상의 초점 부
각을 통해 「조선후기 古文의 형식미」(沈慶
昊)를 찾아낸다. 이교수는 이들 논문에서 다양
한 문체와 사상, 학파와의 특징이 어떻게 관련
돼 있는가를 유념해 읽어보면 그 현대적 해석
까지 짚어낼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한문학의 좀더 깊이있고 포괄적인 천
착을 위해서 이교수가 빼놓지 않는 부분은 ‘경
학’에 관한 논의이다. 이 부분에 관한 한 이번
논문집에는 전혀 배제돼 있는 셈인데, 이는 순
수 한문학관계 논문에 초점을 맞춘 때문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나는 ‘율곡·퇴계·우암의 시
문학을 얘기하면서 어찌 경학 없이 논하겠는
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시문학 위주

인 이 책의 한계를 보충해주기 위해서라도 문
학의 사상적 배경이라 경학의 연구논문은 집
대성될 필요가 있지요. 앞으로 젊은 학자들이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국문학의 파행 제대로 균형 찾아야”

고회를 넘긴 나이가 오히려 무색할 정도의
건강을 지닌 이병주교수가 한문학과 인연을
맺은 지 60년이 넘는다. 1950년 동국대에서
두시를 전공하면서부터 가족들에게는 ‘자기밖
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낙인까지 찍히며 한몫
만 파내려간 이교수는 1958년 「杜詩諺解批注」
를 첫저서로 시작하여 「한국한시선」 「한국문
학상의 두시연구」 「한국한시의 이해」 등 수많
은 한문학 관련 저서와 논문을 저술했다. 틈날
때마다 그리는 산수화 취미조차 한문학 속에
등장하는 옛사람의 마음을 닮고자 함인지도
모른다.

노학자로 하여금 60년 이상의 세월을 묶어
두게 한 한문학의 매력은 무엇일까. 그는 이
책에 실린 한 논문에서 “우리만이 느끼는 喜怒哀
樂이 한자의 다양한 표의성과 오랜 統緒로
결집된 축약성이, 해묵은 중국의 語聲과 律調
에 의해서 기술되었고 우리 특유의 동양적인
체념성과 낙천성이 자재로 반죽되었다는 점이
우리 한문학의 감칠맛이다”라고 표현한다.

이교수는 곧잘 한글문학을 “맑은 냇물에 오
가는 송사리를 빚어내는 것”으로 비유하는가
하면 한문학을 “깊은 연못에 어떤 물고기가 노
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것을 찾는 작업”으로
비유한다. 한문학이 고난한 만큼 연구의 경지
또한 깊다는 뜻일 게다. 때문에 이교수에게는
국내의 학문경향이 ‘안이함’에 편승해 흘러가
는 것이 못내 안타깝다. 우리문학의 뿌리를 찾
기 위해선 수천년래 민족의 생활사를 표현해온
한문학의 역사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바탕이 우선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문학이 단지 한문으로 기술됐다는
이유로 국문학의 테두리 밖으로 내몰려 소홀히
대접받아온 것 또한 사실이다. 때문에 노학자
가 “이 책을 디딤돌삼아 참신하고 수준 있는
논고들이 쏟아져 미진한 부분을 메우고, 한글
문학 위주였던 국문학의 파행이 제대로 균형을
찾기 바란다”고 한 마지막 당부의 말은 오늘
우리에게 오히려 부끄러움으로 다가온다.

— 김지원기자